

2013. 3. Vol 221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산수유

환승역 어디쯤에
멈춰 선 흔적일까

너에게 가는 길을
묻고 또

물어보면
햇살은

저렇게 고와
봄을 당겨 놓는구나



이창규

• 주요경력 :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 시조부문
금상(국무총리상) 수상



2013. 3. Vol 221





▲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새 정부에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전했다.

새 정부에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 촉구

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요구 건의문 채택

충청북도의회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160만 충청도민의 뜻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새정부 출범에 앞서 박근혜 당선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정부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개정 중단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 및 지방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방이전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과학벨트 활성화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동서 5축 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청주공항 활성화 ▲통합 청주시를 중부권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기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도의회는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 국회,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해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 염원·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건의문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개정 중단 및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즉각 철회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 지방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대

셋째, 세종시·혁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실질적 지방이전

넷째, 과학벨트 활성화,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동서 5축 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청주공항활성화, 통합청주시 지원 등 지역별 특화발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1월 31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손 맞잡다’

충청인의 지혜와 저력으로 공동번영 모색

충북도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4개 시·도의회 의장이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충청권 상생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기로 했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난 2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청권이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세종시의 출범과 과학벨트 조성 등 제2의 도약기를 맞아 공조를 통한 상생발전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충청권 시·도 의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협의회 구성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광역개발 사업에 공동협력 대응하고 충청권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촉구 및 국책사업 유치에 협력해 나아가자”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과학벨트 조성, 세종시 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지원 등 각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 및 연계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구체적인 연계협력 방안으로 △상생발전과제 발굴 및 협의를 위한 각 시·도의회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경제·문화·체육·교육 등 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세미나 등도 함께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은 이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을 제안했고, 협의회는 이를 채택해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입법 시도의 즉각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청주·청원통합 지원 및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충청권 개발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재정적 투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장은 “충북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만큼 신수도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충북은 물론 충청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충청권 시·도의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500만 충청인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2월 19일 충청북도의회 김광수·대전시의회 광영교·세종시의회 유환준·충남도의회 이준우 의장이 대전시의회에서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협약식’을 갖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새해 첫 임시회 열고 업무보고 청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주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대안마련도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제 31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신수도권의 중심에 우뚝서도록 청사진을 설계하는 것 등 8가지를 주요 역점시책으로 제시했고,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은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 등 5가지 주요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철저한 시책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1월 31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교육계와 학원가의 뜨거운 관심사항이었던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해 부결 처리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건의문’을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제·개정 중단 촉구 및 새 정부 출범 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 반영해 줄 것을 인수위 등에 건의했다.

김광수 의장은 신년 개회사를 통해 “지난 성과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역설하며 “최고의 기회를 맞고 있는 충북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의 책무에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의회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도정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신수도권 중심으로 자리매김 · 균형발전 실현

충북도는 2013년 도정운영방향을 '화동세중(和同世中)'으로 잡고,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통해 '신수도권 시대 중심 충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600여년간 이어온 수도권에서 경제부처들이 세종시로 본격 이전, 우리 충청권이 경제중심의 '신수도권'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과 병행하여 신수도권의 관문 역할과 배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우리 충북이 정치 · 경제 ·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 새로이 펼쳐질 「신수도권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청사진 제시
- ▲ 지역간 · 계층간 · 도농간 화합과 균형발전을 통해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 실현
- ▲ 우리 도가 선점하여 가꾸어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

북」의 위상 제고

- ▲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충북경제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환경을 중시하는 경제정책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
- ▲ 어르신들이 건강한 실버토피아 충북과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복지충북을 실현해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충북형 복지브랜드로 실현
- ▲ 유기농업을 지속 육성해 충북을 대한민국 유기농 특화도로 만들고 농산물의 명품화 · 고급화를 통한 공격적 수출농업을 추진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
- ▲ 본격적인 신수도권 시대를 맞이해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적극 조성함은 물론 도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체육정책 적극 추진
- ▲ 「충북은 세계로! 세계는 충북으로!」라는 구호 아래 오송 화장품 · 뷰티 세계박람회, 충주 세계조성전수도권대회 성공적 개최로 충북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

창의적 인재 · 바른 심성 지닌 민주시민 육성

충청북도교육청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5대 교육시책의 비전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거둔 탄탄한 교육력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시대의 변화를 담은 다문화 · 다원화 교육을 위해 매진해 나아가겠다며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밝혔다.

- ▲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 조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다양화하기 위해 교과 교실제 운영 등 안정적인 주5일 수업제 운영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창의 · 인성교육으로 창조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어 교육을 충실히 하며, e-러닝 선도국으로서 교류협력국에 대한 교육정보화도 지속 지원

▲ '바르고 건강하며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사랑과 신뢰의 따뜻한 생활지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등 교육수요자와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무상급식이 제공되도록 힘쓰며 기숙형중학교 설립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투자유치로 경제자유구역 조기정착 지원”

도의회, “충북경제구역 지정은 도민의 승리” 환영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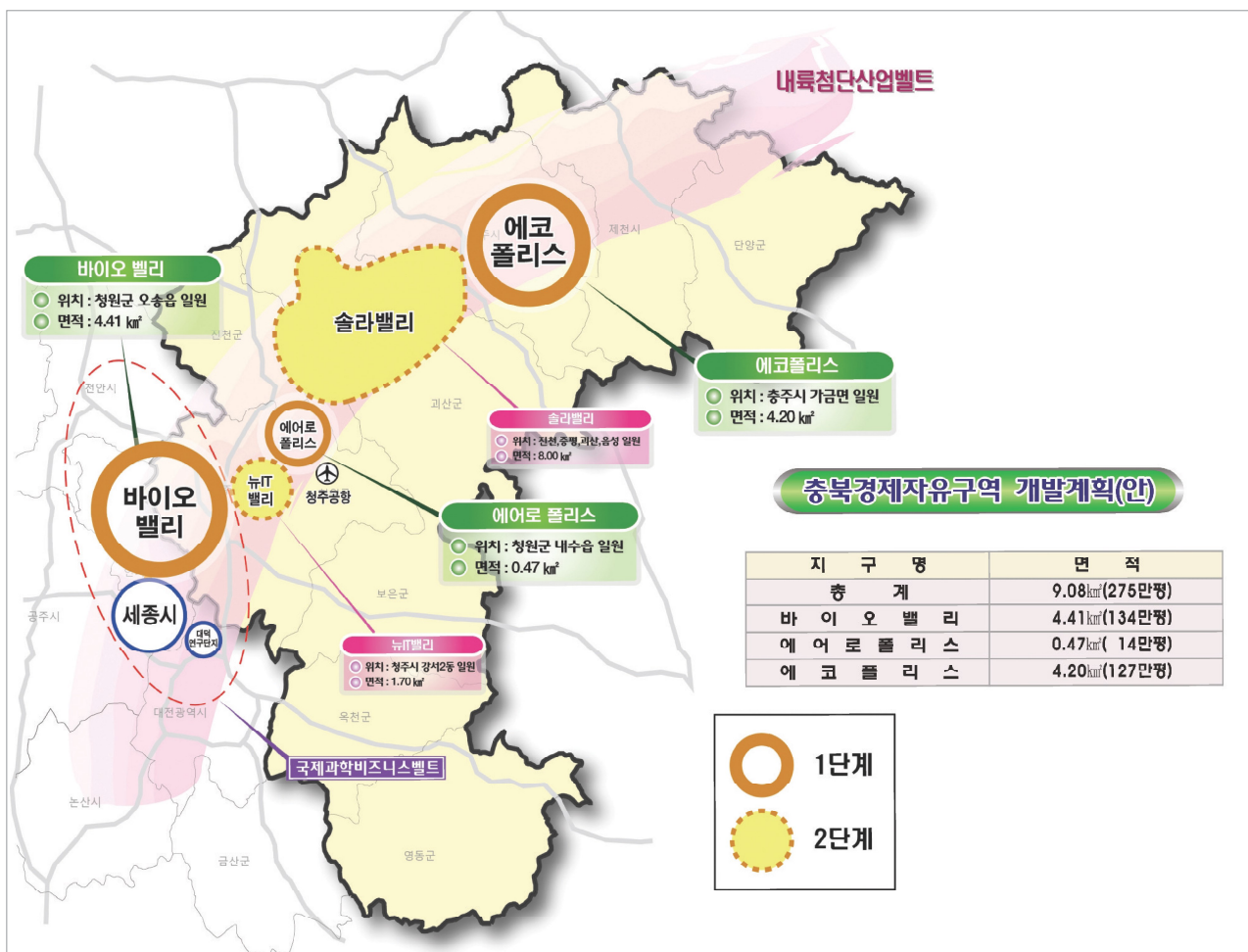
충청북도의회는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최종 결정되자 160만 도민의 승리라며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도의회는 환영 메시지에서 160만 도민과 그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수고한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국가 미래전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일곱

번째로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2012년 9월 25일 예비지정 되었고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충북도의회는 2010년 2월과 2012년 6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목표로 청원군과 충주시 일원 9.08㎢(275만 평)에 3개 권역으로 조성된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바이오 밸리’는 글로벌 차세대 바이오 신약 및 IT 융복합 의료 기기 산업의 메카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에어로 폴리스’는 항공정비·여객·물류,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항공단지로,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 구현을 위한 ‘에코 폴리스’는 바이오휴양산업 및 그린대체연료를 활용한 차량용 전장부품산업 단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솔라, MRO 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만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9만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생산유발 2조5292억원, 총부가가치유발 1조489억원, 소득유발 6044억원의 효과 등 모두 4조18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정된다.

이는 충북경제는 물론 침체된 국내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식약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LG생명과학, 유한양행 등 59개 국내기업 입주로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 매그나칩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IT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이오, IT분야에서 기존 경제구역보다 더 큰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그 희망이 밝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는 입주 외국 기업에 각종 세제 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다양한 혜택 부여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거나 MOU를 체결한 기업을 우선 유치대상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미국, 일본, 신흥국가 등을 상대로 전략적 해외유치활동을 전개해 2020년까지 총 350여개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2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잡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환영 메시지

오늘(2월 4일) 마침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6년여의 오랜 산고와 기다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160만 충북도민과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2010년 2월과 2012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에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회는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되는 감동적인 모습으로 충북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160만 도민여러분과 그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시종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2월 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연구용역 보고회

지역간 불균형 실태와 원인 심도있게 분석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용역

충청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 22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용역 결과보고’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활동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용역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5년 단위로 지역발전역량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박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연구용역은 지역 간 불균형 실태 및 원인,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균형발전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2단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 22일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계 균형발전사업 평가·관리방안, 3단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 의원들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을 바이오산업 허브로 육성’ 비전 담아

—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 24일 회의실에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도내 전 지역 파급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오

송바이오밸리를 세계적인 바이오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바이오산업국과 의견을 나누었다.

충청북도의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은 충북전역을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선진엔지니어링 함인선 대표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구현의 비전과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밸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8월 25일 ~ 9월 1일)

역대 최대규모 80개국 2,300여명 선수단 참여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무리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 동안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조정 축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되며 사상 최대 규모인 80개국 2,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대회기간 중에 장애인 경기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장애인 5개 종목을 비롯해서 남자 13개, 여자 9개 등 총 27개 종목이 펼쳐진다.

조정경기는 국내에서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올림픽에는 모두 1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국제조정대회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마스터스대회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이다.

6개월 후면 지구촌 조정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도 최근 완공됐다.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소재 133,531㎡ 부지위에 총 사업비 672억원이 투입된 이 경기장은 연면적 3,279㎡의 그랜드스탠드 등 총 4개의 부속 시설과 중계도로로 구성됐다. 운영비 303억원을 포함하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사용된 셈이다. 주요 시설별 현황을 보면 그랜드스탠드의 경우 대회관람장과 조직위원회, FISA(국제조정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하게 된다.

결승점을 통과할 때 계측을 하는 피니시타워는 통제실과 심판실, 방송실 등을 갖췄다. 또 마리나센터는 도핑센터와 식당, 샤워실 등이 들어서고 보트하우스는 보트저장소와 휴게소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중계 도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유식 도로로 제작



됐는데, 도로 길이 2.4km 중 1.4km가 물위에 떠 있는 형태로 설계됐다. 이들 경기장시설은 대회 이후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랜드스탠드는 공연관람장이나 체험전시관 등으로, 피니시타워는 전망대 등으로, 마리나센터는 카페나 레스토랑 등으로, 보트하우스는 유스호스텔이나 조정체험교실 등으로 각각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수상에 설치된 중계도로는 세계 최초의 수상도로라는 특징을 십분 살려서 자전거 하이킹이나 트래킹 코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FISA(국제조정연맹)가 정한 규격에 맞게 건설됐다. 때문에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정경기장으로 이미 확정됐다. 또 국내외 조정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탄금호배전국조정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가 수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위는 그동안 대회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런던올림픽 조정 아시아예선대회 등 크고 작은 4개의 대회를 개최했다.

2013 오송 · 화장품 · 뷰티세계박람회 (5월 3일 ~ 26일) 건강한 아름다움 'K-Beauty' 서막 열린다

2013년 5월,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K-Beauty'의 서막이 열린다.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조직위는 5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국내외로부터 몰려드는 300여개의 기업과 2,000여명의 바이어, 그리고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100만 관람객들을 위해 박람회프로그램부터 행사장 조성까지 막바지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충청북도는 화장품 · 뷰티 박람회로는 최초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주시, 청원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이번 박람회를 국내 화장품 · 뷰티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충청북도 오송을 화장품 연구개발유통의 중심지로 부각 시키며, 또한 뷰티서비스 산업 교육의 중심지로 야심차게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박람회를 통해 그간 몇몇 거대 글로벌 브랜드에 의해 가려져 있던 국내 화장품 · 뷰티 브랜드들을 대거 소개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화장품 · 뷰티문화인 'K-Beauty'의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람회는 총 다섯개의 장으로 구성됐는데, 환영의 장, 주제의 장, 산업의 장, 체험의 장,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코리안뷰티(K-Beauty)와 BT · IT · NT의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된 화장품 · 뷰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2013 오송 화장품 · 뷰티 세계박람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주제의 장〉

월드뷰티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이다. 동서양 미인들을 통해 화장의 역사를 알아보고, 특히 한국의 예인(藝人) 황진이, 신사임당, 인현왕후의 화장비법을 입체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 화장품 100년사를 통해 한류와 K-pop에 이르는 'K-Beauty'의 우수성을 발견하게 된다.

생명뷰티관은 첨단 바이오 기술과 노화를 억제하면서 젊은 피부를 유지하게 하는 과학과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충북 오송이 가진 바이오산업과 메디컬산업을 중심으로 인근 오창의 나노 및 인포메이션 기술까지 융복합된 화장품 · 뷰티산업의 미래 비전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피부상태를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산업의 장〉

화장품산업관은 국내외 화장품 기업들이 주력 상품과 신제품을 전시한다. 기업간 거래가 이루어 지는(B2B) 산업관으로서 국내외 5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관하여 비즈니스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

뷰티산업관은 국내외 뷰티용품 제조 기업들이 주력 상품과 신제품을 전시한다. 기업간 거래(B2B)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가 가능한 산업관으로서 역시 국내외 5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관한다. 뷰티 교육기관, 협회, 단체, 연구소 등도 전시 부스에 함께 참가한다.

뷰티마켓은 국내외 화장품과 뷰티용품의 할인 판매 장소이다.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상품을 비교 체험하면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뷰티체험관은 총 13개의 체험관에서 메이크업(색조화장), 네일아트, 타투(문신), 헤어스타일 체험 등이 가능하며 전문가로부터 직접 피부, 두피, 헤어스타일에 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만을 위한 뷰티체험과 화장품 연구원,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등 직업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한류문화관은 5천 년을 이어 온 한국의 문명과 문화

원이 조성된다.

관람객을 위해 주식당 1개소와 부식당 2개소를 운영하고 스낵코너와 식음료 판매시설도 운영하며 도시락을 가져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한 휴게장소도 마련된다. 또한 박람회의 주제 퍼포먼스와 개·폐막식이 펼쳐질 주공연장도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속에서 한국의 미를 찾는 공간이다.

K-팝과 K-뷰티, IT 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한국의 저력을 전통가옥과 생활도구, 자연, 선조들의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뷰티인형관은 100개국의 민족 전통의상을 입은 600여점의 아름다운 인형을 통해 각 나라가 간직하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소통의 장〉

박람회장 밖에 대규모 화초 양귀비 화원과 박람회장 내에 영국식 정

개최지 오송은 '동북아 최대 바이오산업 집적지'

박람회 개최지인 충북 오송은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업 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전문 연구단지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의약품과 화장품산업 지원기관인 바이오산업 6대 국책기관이 모여 있는 동북아 최대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집적지이다.

따라서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능성 화장품의 연구와 개발, 생산, 행정지원이 윈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오송은 KTX 경부선과 호남선 분기역인 KTX

오송역과 5분 거리에 위치해 KTX와 국철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하기가 쉬운 여건을 갖췄으며 청주국제공항과 경부와 중부 등 7개의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충청북도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움인 'K-beauty'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충청북도 오송이 새로운 화장품·뷰티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직개편 유연 대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는 제317회 임시회 회기 중 2차례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1월 22일 개최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계사년 첫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김정용 의회사무처장은 알찬 회기운영 및 현장·상시의회 구현,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의정 실현, 견제와 감시기능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단위의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현안 공동대응과 상호협력을 통한 시·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현안에 대하여는 전체의원 간담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의회내 협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화합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심사한 「충청북도의

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사이의 시차가 발생하여 TF팀 신설 시 소관위원회 확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설조직에 대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일회성 행사 등을 위해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직접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이 추가됐다.

또한 1월 3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대집행부 질문,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진행되었던 간담회에서는 고세웅 사무총장의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와 김동환, 이광희 의원의 연구활동 심의가 이루어졌다.



▲ 1월 22일 2013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규약 개정안 심사



▲ 1월 24일 위원회를 열고 여성정책관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

먼저 1월 23일 실시된 기획관리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혹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실관계 해명과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 2013년도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도·교육청의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무상급식 협의기구 구성과 매뉴얼 개발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1월 24일과 25일 실시한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조직위 등 소관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과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 보건소와 달리 일반 병원에서 5

천원씩 비용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추경에 필요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기업체에서 여성인력들이 단기간에 이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등 일자리 관련기관에서 여성인력과 기업 간의 맞춤형 인력보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의 입장권 판매가 저조한 점에 대해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3일 실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했다. 전국 16개 시·도가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지자체 지방소비세 수입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사용되도록 2010년 5월 설립된 기금으로, 이번 개정안은 2012년 7월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조합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환경문제 철저한 점검과 대응 요청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행정국, 자치연수원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위원들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재원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각종 환경문제의 관리와 처리 및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에 따른 대응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불산 누출 사고와 같은 유해 환경물질 유출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각종 환경사고의 예방 및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유해환경물질 유출사건은 이미 일상적·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경각심을 갖고 환경업무의 핵

심과제로 설정해 민방위훈련일과 연계한 대응훈련, 감시기관 점검인력의 전문성 향상, 대응 매뉴얼 수립을 통한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주문했다.

이어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매각 실패에 따른 현 직원들의 실직문제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진행 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빠른 대처와 후속조치로 민영화 실패에 따른 각종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위원들은 1월 25일 충청북도체육회관을 방문해 충청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체육사업이 도민들의 자긍심 및 건강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각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한 후 3개 체육회가 합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월 25일 충청북도체육회관을 방문해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듣고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취약계층 · 농민 소득증대 정책 요구



▲ 1월 24일 위원회를 열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헌) 의원들은 서로 합심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며 지난 1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서민생활 물가안정관리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1월 23일 오전에 실시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취약계층과 지역공동체의 경제 자립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청주산업단지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어 1월 24일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종자보급의 수급조절 문제가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또 한·중 FTA 체결 움직임에 따라 충북도의 농업에 많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상기온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과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서민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업무와 채권관리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주문했다.

한편,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밭 기반 정비, 소규모 수리시설, 농업용 용배수로, 저수지 둑 높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듣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과 유휴 저수지를 이용한 농외 소득증대 방안모색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심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317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단계 지역균형발전 연구용역과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보고회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2단계 지역균형발전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리고 균형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중요도에 비해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헛구호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균형발전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차별성이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충북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등의 제설제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 제설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제설제를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바이오산업국 업무보고에서는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 오송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충북도내 전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으로 12개 시·군에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실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1월 23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 1월 23일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빈틈없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학교 신축현장 찾아 차질없는 추진 당부



▲ 1월 23일 괴산 오성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제317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심의와 교육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교육위원회는 1월 25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박상필 위원장은 진로·직업교육에 노력해 줄 것과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광희 의원은 방과 후 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실 있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환 의원은 농·산촌의 친환경적인 강점을 살려 도시지역 학생들의 유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병학 의원은 교육청 특색사업 가운데 학생이 행복한 학교와 1학교 1인성 교육 브랜드 갖기 사업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는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응천 의원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5대 교육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진섭 의원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난년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1월 23일 괴산 오성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2013학년도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유완백)는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및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위는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에서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새정부 출범에 앞서 박근혜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개정 중단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 및 지방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방이전,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과학벨트 활성화, 중부내륙철도복선화, 동서 5축 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청주공항활성화, 통합 청주시를 중부권의 신 성장 거

점으로 육성기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이 건의문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 국회,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5년 단위로 충청북도에서 수립하는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 간담회에서는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과감한 차등 지원,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정리를 통해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 대형사업 위주가 아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사업 지원, 장기계획 및 귀농귀촌에 대한 구체화 계획 수립, 현실에 맞는 관련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평가지표가 중복되고 균형발전 예산이 나눠 주기식 예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적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 1월 31일 간담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등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의정 활동 이모저모



▲ 청원·청주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수 의장과 박문희 의원이 이시종 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김광홍 통합추진위원장 등과 함께 명품도시 건설을 다짐했다.



◀ 김형근 의원이 2월 8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청주공항 미래전망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공항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박문희 의원이 1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에 참석해 대형병원유치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강조했다.



▲ 최미애 의원이 2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보조인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활동보조인들의 고용구조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했다.



의정 활동 이모저모



- ▲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결의문을 채택했다.



- ▲ 행정문화위원회는 2월 26일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개최한 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북 스키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는 1월 28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청사활용방안 등을 협의했다.



▲ 도의회 의원들이 1월 31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광수 의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2월 5일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청주 북부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 했다.



▲ 충청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2월 5일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모자원'과 '청주소망의집'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 2월 27일 회의실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개선의견, 정보제공, 대안을 제시하고 도의회 주관 각종 토론회 등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의정참여단 26명을 위촉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자 : 김재종 의원 외 6명)

[주문]

-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질문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본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제안이유]

-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 교육행정에 반영
-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본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조직신설(TF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규정을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 일회성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조직이 신설(TF팀 등)되는 경우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확정 위한 규정 신설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자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주문]

-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달러의 경제대국이 되기 위한 선제조건이며 시대적 소명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법령 제개정 철회,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이양,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의 실행력 확보 등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

[제안이유]

-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수도권정비계획 법령 제·개정 움직임에 대한 시도 중단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필요

- 새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의지를 담은 정책들이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 전략사업의 적극적 지원 등 지역의 염원 건의 필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 7. 1. 법적 지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원을 구성코자 함

[주요내용]

- 조합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 현행 19명인 조합의 위원수를 20명으로 조정
- 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17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국장(1명)
-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명)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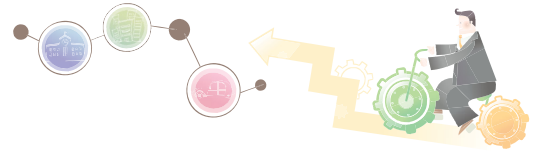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함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중단 등을 규정
-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본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재정지원의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 사업의 실적보고 -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중단 등 -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규정 위반 시 중단 또는 환수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3학년도 신설학교와 기숙형중학교 설립 및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한 해당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고, 학생수 감소에 의한 학교폐지 및 이전으로 인한 위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 신설(3개 학교)

1) 유치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청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0	2013.3.1.	과대·과밀학교 분리로 교육환경 개선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청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0	2013.3.1.	과대·과밀학교 분리로 교육환경 개선

3)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괴산오성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창로 56	2013.3.1.	목도중, 장연중, 감물중을 통합하여 기숙형중학교 개교

- 교명 변경(4개 학교)

명 칭	변경 후 명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충주농업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88	2013.3.1.	일반고 전환

명 칭	변경 후 명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미원공업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미원초정로 27	2013.3.1.	운영체제 개편
학산정보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학산양산로 12	2013.3.1.	일반고 전환
단양공업고등학교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하리길 69	2013.3.1.	운영체제 개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준용 규정 마련
- 상위법의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부결

[제안이유]

-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사교육비 경감으로 서민가계 안전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여 통일시키고자 함

충청타임즈

“도민 자긍심·건강권 등 각별히 노력”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3개 체육회 주요업무 보고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25일 제317회 임시회기 중 충북도체육회,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충북도 체육회관을 방

문해 사업추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들은 3개 체육회의 주요사업 현황과 사업 집행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체육 사업이 도민들의 자긍심과 건강권 등과 직결된 만큼 각 기관 및 관련 행정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숙 의원(민주통합당·비례)은 체육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도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3개 체육회가 합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천영준기자 cheonkiza@ccetimes.kr

중도일보

충북 유치원 운영위 설치

도의회 개정안 통과... 학부모 참여로 투명성 강화

올해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6일 충청북도교육청은 이와관련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내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치원 규칙 제정, 예산·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부담경비, 급식에 관한 사항 등 10가지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충청투데이

“교육공무원 비위 엄단 필요”

충북도의회, 영양교사 급식물품 반출사건 등 쓴소리 잇따라

충북도의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지역 교육계 비위 행위가 집중 거론되는 등 쓴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급식 물품 특정업체 반출 사건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상필(교육의원·제2선거구) 교육위원장은 “사건 진상

질 만큼 공무원신분으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광희(민주당·청주5)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에게 충북 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청렴교육 등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

구매한 후 급식에 사용하지 않음에 고발했다. 또 청주교육청 Wee센터 모 상담교사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상담차려 돈을 받고 강의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이북도교육청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

중부매일

“농산촌 학교 통폐합보다 ‘유학’ 유도 바람직”

충북도의회 임시회 이모저모

충북도의회는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가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도교육청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현안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장 방문 일정을 가졌다.

교와 1학교 1인성 교육 브랜드 갖기 사업이 교육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별, 학급별 세부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

김동환 의원은(충주시·민주통합당) “들어오는 농·산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폐교나 통폐합으로 처리하기 보다 친환경 교육환경과 지역 특수성을 살려 도시지역 학생들의 유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충주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체육시설 적극적 홍보 필요

○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단양)는 충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충청북도체육회관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 등을 확인.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이날 체육회 주요사업현황과 사업

동양일보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지방 의회

충북도의회는 31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정비계획 제2차 개정 움직임의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국회,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16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 개정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이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과 독자성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며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과학벨트 활성화, 동서5축 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등을 건의했다.

<지영수>

충청매일

충북도의회 학원교습제한조례 부결

갑론을박 끝에 표결 처리... 폐기 처분도교육청·학부모단체·학원 회비 교차 “교육현실 제대로 파악 못해” 비판도

충북도의회에서 3년간 표류하던 학원교습제한조례가 결국 부결됐다. 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 학원계 등의 회비가 엇갈렸고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시작부터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위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본회의에 회부됐던 ‘충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317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2010년 3월 마련했다. 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사교육비 경감 등의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원업계의 반발과 19대 총선, 18대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겹치면서 3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 1월 조례안의 부칙을 ‘조례 공포 후 3개월 후’에서 ‘조례 공포 후 6개월 후’로 수정한 뒤 본회의에 회부했지만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었다.

이날 박상필 교육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율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었다”

며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북한 의견 교환 후 결정하자(박문희 의원) △양자간 의견 청취·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자(윤성숙 의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올 것. 현 시점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김동환 의원) 등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표결처리로 결론이 났다. 표결엔 재석 의원 35명 중 불출석자 3명 등을 뺀 32명이 참여했고 찬성 10표, 반대 19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폐기처분됐고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충북지역 학원은 지금처럼 초·중

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교습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학부모단체 아쉬움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안이 끝내 부결되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안타깝지만 당분간 이 조례와 관련한 수정안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제정에 찬성해온 학부모 단체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홍현숙 회장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반대 때문에 부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아이들 교육문제가 정치논리에 편입돼 시장되는 것 같이 착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회정·배열식기자

20.5 X 12.8 cm



수인성 전염병 주의하세요!!

수인성 전염병이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병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대표적인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 대장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등은 세균에 의해 발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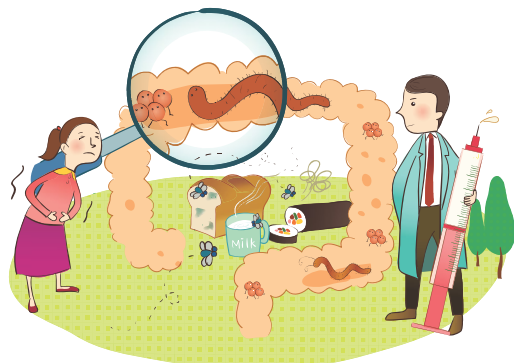
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A형 간염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등을 일으키는 원충도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들은 오염된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위장관에서 증식하면서 감염증을 일으킨다. 주로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등 위장기관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지만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따라 잠복기와 동반증상이 다양하다.

발열의 정도, 설사의 양상이 수양성 또는 점액성 인지 등으로 드물게 위장관 증상보다 다른 증상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티푸스는 설사보다 심한 발열과 두통이 주 증상이며 A형 간염의 주된 증상은 전신 위약감, 황달 등이 나타난다.

더군다나 수인성 전염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같은 시기에 다수의 환자를 발생시켜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감염증을 일으킨 병원성 미생물은 분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

이는 다시 주변의 물을 오염시켜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 또 수인성 전염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비슷해 증상만으로 원인균



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통 환자의 증상과 잠복기간, 분변에서 원인균을 배양하는 검사 등을 시행해 원인을 알아낸다.

치료의 경우 대부분 증세가 나타난 뒤 하루 이틀 정도 건강관리를 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토와 설사로 체내의 수분이 손실되고 전해질 불균형을 보인다면 수액 공급 등의 치료가 뒷받침된다.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이 밝혀졌다면 적절한 항균제, 항원충제를 사용한다.

이처럼 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D가 부족한 환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야외활동 부족을 첫째로 꼽았다.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모든 연령에서 햇빛이 있는 낮 시간대 야외활동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 진료 인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자외선차단제를 과다 사용해 피부에 닿는 햇빛을 차단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모범납세자는 금융기관 신용등급 올라간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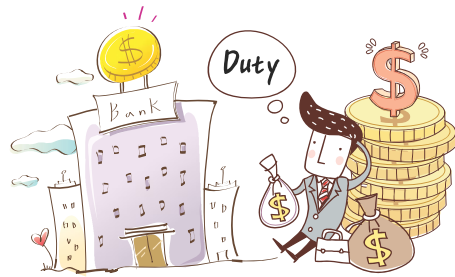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사항」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등급이 상향조정되도록 했습니다.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금융거래시 여신한도, 여신기간 및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 증가합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금융 신용평가 우대대상자는 20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되며, 2012년 9월부터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시행하여 법정처리기한 보다 1/2 이상 단축하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모범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3년→2년)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2년→3년)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10일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6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고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켰습니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

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되며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월 29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위의 해당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계속비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김 영 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 단 체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감시하고 다음연도에 결산을 승인하는 예산과 관련된 권한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계속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예산의 운영원칙 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다. 세입과 세출을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다음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한해에 집행이 완성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발생하며, 특히 투자 사업은 회계연도 안에 종료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의 예산이월제도를 두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중 계속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에서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완성년도까지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이월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집중투자로 적기 완공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로 재정투자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다양한 예산수요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수년간의 총사업비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의 산정이 어려우며,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요구 등으로 객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비를 적용한 집중 투자식 예산 편성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분산투자 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용편익과 공사비 증가를 추정 계산하면 총사업비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각 6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4개의 도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을 통한 분산투자 방식은 6년이 지나야 모든 도로가 완공되고 총 공사 기간이 24년이나 소요되어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집중 투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1개의 도로는 2년만에, 나머지 도로는 각 3년의 공사로 완공되어 총 공사 기간이 11년 소요되므로 기회비용과 공사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산재한 공사구간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재정투·융자 심사가 강화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 충북에서도 계속비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2014년도 예산부터라도 시범적으로 몇 가지 사업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돌아보는 나의 의정 하모니



장 병 학 의원 (교육위원회)

청주에서 30여년의 정겨운 삶을 에우면서 4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한 후 지난 2010년 6월 청원, 음성, 진천, 괴산, 증평 5개 군의 교육의원 선거구에 뛰어 들어 도의원 배지를 얻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나의 바쁜 의정생활은 시작됐다.

교육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기에 다른 도의원보다 바빠 움직여야만 하는 숙명적인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의원이된 이튿날부터 나에게 주어진 직분,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생활을 꾸준히 펴왔다.

충북도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과학연구원 외 9개 직속기관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육기관 예산심의 및 의결, 행정확인 및 지도, 행정감사 등을 꼼꼼하게 실시해왔다. 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일반 도의원들과 함께 충북도의 예산심의·의결 업무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회 내에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세종시특별위원회 위원, 청원·청주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면서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자위할 수 있다.

틈틈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라 넓은 지역구 행사 참여는 물론,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펼치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주는 나침반 활동을 나름껏 펴왔다는 작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그릇임을 느낀다. 반성해본다. 하지만, 내게 많은 분들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의원으로 각인시켜 줌에 오히려 감사의 마음만이 앞서고 있다.

의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입법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 독서교육 조례’ 등을 대표발의 제정함에 도의원 중 가장 많이 발의했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았을 때 왠지 계면쩍었지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

본 의원은 도의회 29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도는 도지사 임기 내에 문화예술 총액 예산을 3% 이상 지원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문화예술의 핵심 문화와 충북도의 문화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충북문화관 건립과, 백곡중학교 폐교를 활용한 충북문화관 건립 조성은 물론 예산확보에 앞장서왔다. 또한 2014년까지 300억 원 이상의 도문예진흥기금을 마련하여 충북예술인들의 보다 품격 높은 문학, 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정생활 끝나가는 연말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충청북도의회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해줬다. 주민직선으로 넓은 지역에서 어렵게 뽑힌 의원 자격으로 당당하게 받은 상이기에 교직 기간에 활동하다 받은 대통령 훈장이나, 한국교육자 대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욱 값지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또한 논설위원으로서 언론을 통해 정기적으로 세상 이야기를 포함한 의정일기를 토박토박 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펼 예정이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남은 의원 기간 도민을 섬기면서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내 가슴 속 깊이 파고들을 때 찬연한 금빛 햇살은 온 누리를 담금질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